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7월 14일

교회력(다해), 전체 33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후 다섯째 주일** 창조절

☞ 오늘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요즘 채송화가 한창이다. 모양이 앙증맞으나 색깔은 강렬하다.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o/churchs>

이번주는
4층 아트갤러리 5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삶(생명)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은 궁극적인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최선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송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1,2,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영혼이 위축되거나 훼손되는 길을 걷지 않도록 붙들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삶에서 영적인 안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매 순간 영혼의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살기 원합니다.
지금의 물론이고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또한, 생명 심판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심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살아갈 때가 허다했습니다. 우리 삶의 토대가 왜 이렇게 허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중한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 소유와 업적, 세상의 미덥지 않은 일에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리며,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현재의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뢴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179장 (사랑하며 살리라) ... 다 함께

김경수

나운영

세마치

1. 사랑하며 살리라 믿으며 살리라
2. 하나님 의 큰 사랑 믿게 달아 살리라
3. 기도하며 살리라 믿게 달아 살리라
4. 사랑하며 살리라 믿게 달아 살리라

우 리 땅 우 리 하늘 가 꾸 고 되 - 살 려
기 뻔 과 소 망의 땅 아 끼 고 지 - 키 며
푸 른 땅 높 은하 기 름 진 동 - 산 에

찬 - 란 한 아 침 해 높 은 뜻 기 리 며
풍 - 알 의 하 느 님 은 랑 을 퍼 려
한 - 의 밀알 되 사 이 땅 에 묻 히 어

사 랑 하 며 살 리 라 믿 으 며 살 리 라
하 나 님 의 큰 사 랑 믿 게 달 아 살 리 라
기 도 하 며 살 리 라 믿 게 달 아 살 리 라

신뢰와 확신, 성도의 생활

요 15:12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등불이요, 진리에 이르는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아모스 7: 7-17 ... 채진진 집사

성서교독 시편 82편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하나님의 법정으로 하나님이 나오셔서 모든신들 모으시고 하늘재판 여셨다네
-언제까지 너희들은 악인편만 들려느냐 공정하지 않은재판 되풀이만 하려느냐
 고아들과 가난한자 성심성의 변호하고 가련한자 궁핍한자 모든권리 찾아주며
-가난한자 빈궁한자 구원하여 줄지어다 악인들의 손안에서 그들구해 줄지어다
 그런데도 그들모두 이사실을 못깨닫고 분별력을 잃어버려 어둠속을 헤매이니
 온세상이 기초부터 송두리째 흔들린다
-나의말을 들을지라 너희모두 신들이고 가장높고 높으신분 아들이라 한다면
 세상보통 사람같이 너희들도 죽을거며 세상여느 군주처럼 스러지고 말것이다
-주하나님 이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나라와 온세상이 오직주님 것입니다

제2독서 골로새서 1: 3-14 ... 채진진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0: 25-37 ... 채진진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찬송 하나님의 약속 ... 샘터중창단

설교 아들과 죄 용서 ... 정용섭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1,2,4절 ... 다 함께

봉헌예전

신앙고백 니케아신조 ... 다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헌금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예전

성찬찬송 230장(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3,4절 ... 다 함께

준비기원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빵을 주셨으니, 이 빵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넝쿨과 인간 노력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으니 이 포도주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들판의 밀알이 변하여 빵이 되고, 포도밭의 포도송이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찬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아멘.

인사나눔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계십니다.

집례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높입니다.

회중: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니다.

성령임재의 기도 ... 집례자

성찬 제정사

집례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 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전 11:23-25)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회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마 27:27-50),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눅 42:44-48),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행 1:9-11). 아멘.**

분할례 ... 다 함께

집례자: 우리가 이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막 14:22, 요 6:56-57, 고전 10:16).

회중: 아멘.

집례자: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막 14:24, 요 6:56-57, 고전 10:16).

회중: 아멘.

신앙고백 (하나님의 어린양) ... 다 함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허락해주십시오.

성찬참여

집례자: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양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서 회중은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

감사기도 ... 집례자

감사찬송 (시므온의 안식노래, 눅 2:28-32) 3번 반복 ... 다 함께



나 주님의 영광 봤으니 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해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2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후 다섯째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셨으니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예배후 모임**

-정용섭 목사와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교우들은 공동식사에 참여하셔서 친교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소: 산채가)

지난주일 헌금 570,000원 (주일헌금: 310,000원 선교헌금: 100,000원, 통장헌금: 160,000원)

(2019/7/7)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7,8월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성령강림후 5주 7/14	4층 아트컬리지5실	정용섭	채진진	양혜선
성령강림후 6주 7/21	4층 아트컬리지5실	박재진	윤동희	오미영
성령강림후 7주 7/28	4층 아트컬리지5실	이춘우	고중흥	박수진
성령강림후 8주 8/4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신창식	이기령
성령강림후 9주 8/11	4층 아트컬리지5실	정용섭	이유선	윤혜정